

제17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좋은 광고를 선정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인 제17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이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문화일보홀에서 있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1992년 이 상을 제정했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주최하였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후원하였다.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좋은 광고상에 선정된 34편의 작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편을 선정하고, 다시 이 중 대상 2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상작을 결정했는데, KTF '내 인생의 쇼' (광고회사 제일기획)가 전파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동 수상)을, LG LG브랜드 명화 시리즈' (광고회사 HS에드)가 인쇄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동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파부문에는 하나금융그룹 '다문화 가정, 위킴' (광고회사 웰콤)이, 인쇄부문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아름다운 기업 시리즈' (광고회사 삼암커뮤니케이션즈)가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제17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는 총 370여 편의 광고가 출품되었다.

1차 예심에서는 광고관련 교수와 소비자단체 임원 등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소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광고, 모방광고, 비방광고, 허위, 과장광고 등 문제성 광고를 우선적으로 가려내어 총 286점을 선정했다.

2차 투표인단 투표심사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추천한 투표인단과,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인 애드컬리지, 애드파워, 애드플레이시, 애드피아, 그리고 마우스닷컴 대학생 네티즌 등 100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총 168점이 선정되었다.

3차 본심에서는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재욱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천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토론과 투표를 거쳐 매체별, 업종별 총 34점을 선정하고,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점과, 이 4점 중에서 다시 영예의 대상 2점을 결정했다.



심사 소감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도 좋은 광고작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370여 편의 출품작 가운데 총 34편의 작품을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광고가 얼마나 소비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광고, 소비자를 활짝 웃게 만들어주는 광고,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 광고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요즘 소비자는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어렵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소비자에게 큰 웃음을 주는 광고는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반드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소비자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광고를 볼 때면 정말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게 됩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정보가 가득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의 수상작들은 모두 소비자에게 웃음을 주고, 건강한 메시지를 주었던 그야말로 좋은 광고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네 작품은 소비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KTF '내 인생의 쇼'와 LG의 LG 브랜드 명화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골고루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최고의 광고로 뽑혔습니다.

이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100여 명의 소비자 심사단을 비롯해 모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단단히 엮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 광 모